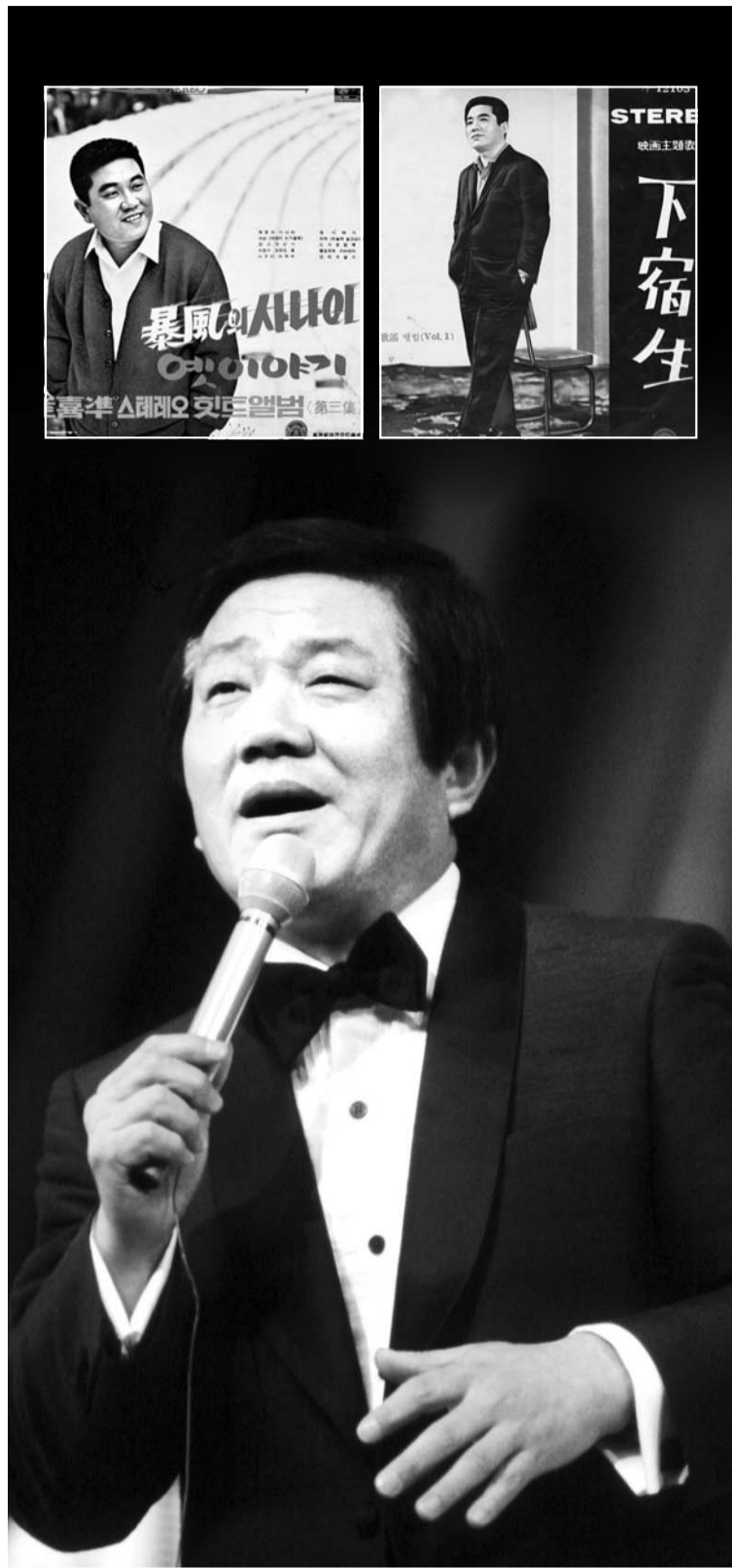


‘영원한 하숙생’ 최희준, 세상과 영원한 작별

광주평화방송 ‘위대한 여정’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



‘맨발의 청춘’ ‘중점’ ‘하숙생’ 등 많은 히트곡 남겨 문 대통령 조하...가요계 이외 각계각층서 애도물결

지난 24일 별세한 원로가수 최희준 발인식이 26일 오후 2시 고인의 대표곡 ‘하숙생’의 ‘인생은 별가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란 가사처럼 고인은 명곡들을 남겨둔 채 ‘구름이 흘러가듯’ 세상과 영원한 작별을 했다.

26일 오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행된 발인식은 유족과 지인들이 참석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유족들은 고인의 운구 차량에 마지막 인사를 하며 깊은 슬픔에 젖었다.

고인은 1960년대를 풍미한 가수이자 한때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해 이 분야에서 생전 인연이 있던 지인들이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대철 민주평화당 상임고문, 전직 국회의원인 작가 김홍신 씨 등이 조문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 애도하기도 했다.

또 가요계에서는 남진 대한가수협회 초대 회장과 김홍국 대한가수협회 회장을 비롯해 현미, 진승남, 자니리, 서수남, 박재란, 남일해, 남상규, 박일남, 최성수, 김국환, 민해경, 이자연, 현당, 옥희 등이 빈소를 찾았다.

KBS 2TV ‘불후의 명곡’ 제작진은 25일 방송에서 고인이 ‘하숙생’을 부르는 영상을 내보내며 ‘한국 가요사의 큰 별이 되신 영원한 전설 최희준 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자막으로 추모했다.

1936년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0년 손석우가 작곡한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를 발표하며 데뷔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당시로는 드문 학사 출신 ‘엘리트 가수’로 화제를 모았다.

나긋한 저음과 푸근한 미소가 트레이드마크인 고인은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를 시작으로 ‘맨발의 청춘’, ‘길 잃은 철새’, ‘팔도강산’, ‘중점’ 등 많은 히트곡을 내며 ‘한국의 냇강골’, ‘가요계 신사’로 불렸다.

특히 그는 인생의 덧없음이 시작된 노랫말에 담긴 1965년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 ‘하숙생’으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트로트가 유행하던 시절 스윙 재즈 풍 노래와 팝 발라드로 당시 젊은층 인기를 끌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 노래는 1991년 가수 이승환이 2집에서 리메이크해 시대를 넘어 사랑받기도 했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발기인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안양시 동안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며 ‘가수 출신 정치인’ 1호라는 수식어도 있었다.

2001년 문예진흥원 상임감사, 2003년 한국대중음악연구소 이사장을 지냈으며, 2007년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대상(문화훈장)을 받았다. 장지는 용인 천주교 묘원이다.

/연합뉴스



‘위대한 여정’ 제작진이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정

광주가톨릭평화방송(cpb)은 특집 다큐멘터리 ‘위대한 여정’ (기획 김선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프로그램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창설 100주년과 한국 진출 85주년을 맞아 제작한 2부작 특집 다큐멘터리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는 1918년 에드워드 갈빈 주교와 블로워 신부에 의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창설됐다. 1933년 10월 29일 10명의 선교사가 전라도에 들어온 후 지역 교회의 초석을 다졌으며 춘천과 원주교구의 설정과 선교에도 크게 기여했다.

‘위대한 여정’은 1부 ‘사라, 그 불멸의 기억’에서 골롬반회 사제들이 지난 1933년 낯선 한국에 오게 된 배경과 전라도에 진출한 과정을 담았다. 이후 목포성골롬반병원과 나주 혜성학교, 현애원, 광주 엠마우스복지관, 제주성이시돌목장 등을 운영하며 복음 전파는 물론 빈민구제, 교육, 사회복지사업을 펼친 내용도 수록했다.

또 2부 ‘영원한 여행, 영원한 꿈’에서는 6·25전

쟁과 제주 4·3항쟁, ‘지학상 주교 구속사건’을 비롯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등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도 소외된 이들과 함께 했던 골롬반회 사제들의 희생적인 삶을 조명했다.

특히 이번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은 배우 권해효씨가 맡아 작품의 완성도와 진밀도를 높였다. 연출진은 9개월에 걸쳐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해 제주도와 강원도 춘천, 화천 등에서 사목하고 있는 골롬반회 사제들을 만나 생생한 증언을 담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꽃보다 할배’ 할벤져스 다음 여행지는 쿠바?

‘쿠바 가고 싶어’ 여행 의지 드러내 마지막회 시청률 7.6%로 종영

5인조가 된 ‘꽃할배’들의 새로운 도전이 감동을 주며 마무리됐다.

날스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9시 50분 방송된 ‘꽃보다 할배 리턴즈’ 마지막 회 시청률은 7.6%(유료가구)로 집계됐다.

이날은 할배들의 동유럽 여행을 되짚어보는 감독판이 방송됐다.

할배들은 여행 후 서울에서 다시 만나 여행의 추억을 되새겼다. 이순재, 신구, 박근형, 백일섭, 김용건은 평균연령 78.8세지만 여행 내내 정중 못지 않은 열정을 보여줬다. 할배들이 동유럽을 여행하며 미술 작품과 건축물에 감동하는 모습도 전파를

다. 특히 이번엔 새로 합류한 가장 젊은 할배 김용건은 막내로서 형님들을 살뜰히 챙겨 시청자들을 미소지게 했다. 김용건 특유의 농담은 할배들을 웃게 하는 여행의 활력소가 됐다. 할배들은 “다음에는 쿠바를 가고 싶다”는 말을 남기는 등 다음 여행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꽃보다 할배 리턴즈’는 3년 만의 ‘꽃할배’ 시리즈로, 그동안 애정을 갖고 기다리던 시청자들이 많았다. 방송 내내 ‘부모님 생각이 났다’, ‘할배들의 우정이 보기 좋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동시간대 방송된 SBS TV ‘정글의 법칙 in 사바’는 시청률 9.2%-10.3%, MBC TV ‘선을 넘는 녀석들’은 5.2%를 기록했다. MBC TV ‘나혼자 산다’는 10.0%-13.0%, KBS 2TV ‘거기가 어딘데’는 시청률 2.3%-2.5%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2018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아시아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파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2018 아시안게임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여기는 자카르타 <양궁>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50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농구 남자 8강>		00 SBS 12뉴스 50 2018 아시안게임 <여자핸드볼/양궁>
1	50 연중기획 빛고을 행복아카데미 (재)		35 좌충우돌 만국 유럽기	
2	50 전라도 매력청 (재)	00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예선 <대한민국·중국>	30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스페셜	
3	40 UHD 한식의 마음(재) 50 여기는 자카르타 <양궁/핸드볼>	30 TV 유치원	30 드림 주니어 스페셜	00 열린공간 토크 Talk
4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00 사이닝스타 30 뽀뽀모두야 놀자	00 SBS 뉴스특보 남북 이산가족 상봉
5	30 KBS 뉴스 5	00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남자 8강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00 5 MBC 뉴스 20 2018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00 2018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6	00 여기는 자카르타 <하키, 리듬체조>			
7				
8	25 내일도 맑음	00 끝까지 사랑 4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00 MBC 뉴스데스크 40 2018 아시안게임 (야구/배드민턴)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재)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러블리 호러블리		00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1	00 KBS 뉴스라인 40 다크세상	10 안병하세요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0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35 영상앨범 산	00 전지적 참견 시점 1~2부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동글레 임시수당>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프랑스 와인기행 - 1부 부르그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3:00 다크 오늘 13:10 아용명명 귀여워 13:40 배워서 남줄림 14:30 몬카트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15:15 파파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강철소년대 파이어로보 16:15 똑딱맨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06:00 한국기행(재)	17:15 마사와 곰
06:20 세계테마기행	17:30 띠띠뽀 띠띠뽀
07:00 강철소년대 파이어로보	18:00 생방송 퓌터! 보니하니1~5
07:30 띠띠뽀 띠띠뽀	19:00 몬카트
08:00 당동당 유치원1~2	19:30 EBS 뉴스
08: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45 방귀대장 뽕뽕이	20:40 세계테마기행 <아주 특별한 로맨스 체크 1부 유쾌한 체코살이>
09:00 뽕뽕뽕 뽕뽕이	21:30 한국기행 <알미당에서 여름휴가 1부 숲속의 여름 소풍>
09:15 뽕뽕이 노래해요	21:50 EBS 다크프라임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09:40 세상을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23:55 배워서 남줄림
10:30 한국기행(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7일(음 7월 17일 辛卯)	
子	36년생 길성의 기운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48년생 부실함은 단순한 숙단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60년생 길지에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계기이다. 72년생 지나친 조심은 추진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84년생 상호간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91	午	42년생 준비가 아니라 강도의 문제이다. 54년생 팔복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66년생 외곽에서 곁돌수 있다. 78년생 매우 어색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으니 처신을 잘 해야겠다. 90년생 합목적성과 투명함이 성과를 배가 시켜준다. 행운의 숫자 : 30, 20
丑	37년생 낮은 자세로 임하자. 49년생 상대의 깊은 마음속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61년생 모든 것을 차치하고 속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백 번 낫다. 73년생 길조가 연거림 피어오르고 있다. 85년생 활동한다면 획기적인 생산 효과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5, 03	未	43년생 충분한 의사 전달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55년생 구색을 맞추다 보면 무리할 수도 있음을 알라. 67년생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합리하다. 79년생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리라. 91년생 모두가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32, 08
寅	38년생 사람들로 부터 각광 받게 되는 날이다. 50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62년생 다각도로 여러 번 검토해 보지 않으면 허점이 생긴다. 74년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86년생 가까운 이가 괴로움을 안겨다 줄 수다. 행운의 숫자 : 79, 10	申	44년생 희망의 빛이 비취오는 형국이다. 56년생 안정세를 굳히게 되지만 노고는 따를 것이다. 68년생 상황이 경색되기 전에 용통을 부리는 것이 낫다. 80년생 비밀리에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92년생 의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운의 숫자 : 13, 35
卯	39년생 기묘한 기운이 휘몰아치니 이번이 예상된다. 51년생 수을 한다면 나름대로 충분한 역할을 하리라. 63년생 생 마지막 고비가 기다리고 있으니 잘 활용해 보라. 75년생 가랑잎에 불꽃이 일어나는 기세이다. 87년생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행운의 숫자 : 19, 91	酉	45년생 삼사일연 한다면 실수는 면하리라. 57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69년생 중차대한 실황을 포착하게 되는 기회가 있다. 81년생 극상의 정점에 와 있으니 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3년생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43, 48
辰	40년생 순조롭게 진행되는 성공이로다. 52년생 현재에 구애 받지 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정하자. 64년생 의견을 개진해보면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76년생 앵무 먹는 모양새가 전개 된다. 88년생 목적이 부합하는 속성들이 나타나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7, 26	戌	34년생 매사에 예의 주시하며 정갈히 대가하라. 46년생 실제 효력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58년생 속도 보다 완성도가 요구되는 판도이다. 70년생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82년생 여러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39, 17
巳	41년생 발 벗고 나선다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이다. 53년생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손님이 찾아 올 수도 있다. 65년생 알고도 가만히 있음이 나을 것이다. 77년생 목표에 성실성을 접근하고 있느니라. 89년생 이미 틀어진지 오래되었다. 행운의 숫자 : 84, 22	亥	35년생 잠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동세이다. 47년생 한번 정해진다면 계속 행하는 것이 제일 낫다. 59년생 자라를 종합한 다음에 행하라. 71년생 일체적인 관점과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83년생 조금만 더 나아가면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8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